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멕시코 광림미션센터’ 봉헌

메리다 현지에서 9월 24일 봉헌, 중남미 선교의 새 지평 열어

1905년 대한제국 말기, 낯선 이국땅 멕시코 유카탄반도 메리다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애니깁(용설란)을 베어내며 눈물 흘렸던 한인 이민자들의 아픔이 서린 역사적 현장에 복음과 치유의 새로운 동지가 마련됐습니다. 광림교회는 지난 9월 24일, 멕시코 메리다에 ‘멕시코 광림미션센터’를 봉헌했습니다. 이번 미션센터는 광림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세운 10번째 나라, 13번째 미션센터입니다.

눈물과 저항의 역사, 메리다에 피어난 신앙의 유산

메리다 지역은 120여 년 전, 허위 광고에 속은 1,033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가혹한 노예 노동에 시달렸던 비극의 장소입니다. 설상가상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로 무국적자가 되었지만, 한인들은 민족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리교 계통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과 이주민들은 목숨을 건 ‘주일성수’로 예배를 드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글학교를 세워 자녀들을 가르치며 이민자 사회의 굳건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진 미션센터

광림교회는 2년 전 중남미 선교사대회와 메리다 지역 의료선교를 통해 이러한 역사적 아픔이 깃든 메리다에 미션센터를 세워야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리다의 가장 안전한 지역에 건물을 구입하여 ‘멕시코 광림미션센터’를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9선교구와 광림의료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헌신의 손길이 씨드머니가 되었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마침내 봉헌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정석 감동회장은 “멕시코 광림미션센터 봉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맺어진 거룩한 열매이다. 멕시코를 넘어 중남미 전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적 허브이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션센터는 90평의 대지 위에 연면적 80평이며, 1층은 현지 성도들을 위한 예배실과 강의실, 교제와 나눔을 위한 식당, 2층은 중남미 교사들을 위한 숙소 및 게스트룸, 클래스룸 등으로 다채롭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흠어진 공동체 회복과 멕시코 선교 전략적 허브로

시간이 흘러 한인들의 초기 신앙 공동체는 점차 약화되었고, 많은 목회자가 정규 신학교육 없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에 이단이 침투하는 등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광림교회는 미션센터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정규 신학교육으로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고, 문화센터를 운영해 한글 교육과 문화를

알리며, 이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를 넘어 중남미 전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영적 충전과 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120년 전 애니깁 농장의 청년들이 지켜낸 믿음의 불씨가 이제 ‘멕시코 광림미션센터’를 통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행 14:9)

사람들이 믿음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식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다소간에 지식을 얻어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관념, 지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감정의 격동으로 정의합니다. 감정 순화를 믿음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 중 제일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다면 믿음을 의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의지의 혼동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의지를 믿음과 같은 의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종교 의식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착각합니다. 종교의식에 익숙한 생활을 믿음의 생활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종교의식도, 의지도, 감정의 격동도, 추상적인 이론이나 관념,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요,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군중 속에서 나면서부터 견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10절)라고 하니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견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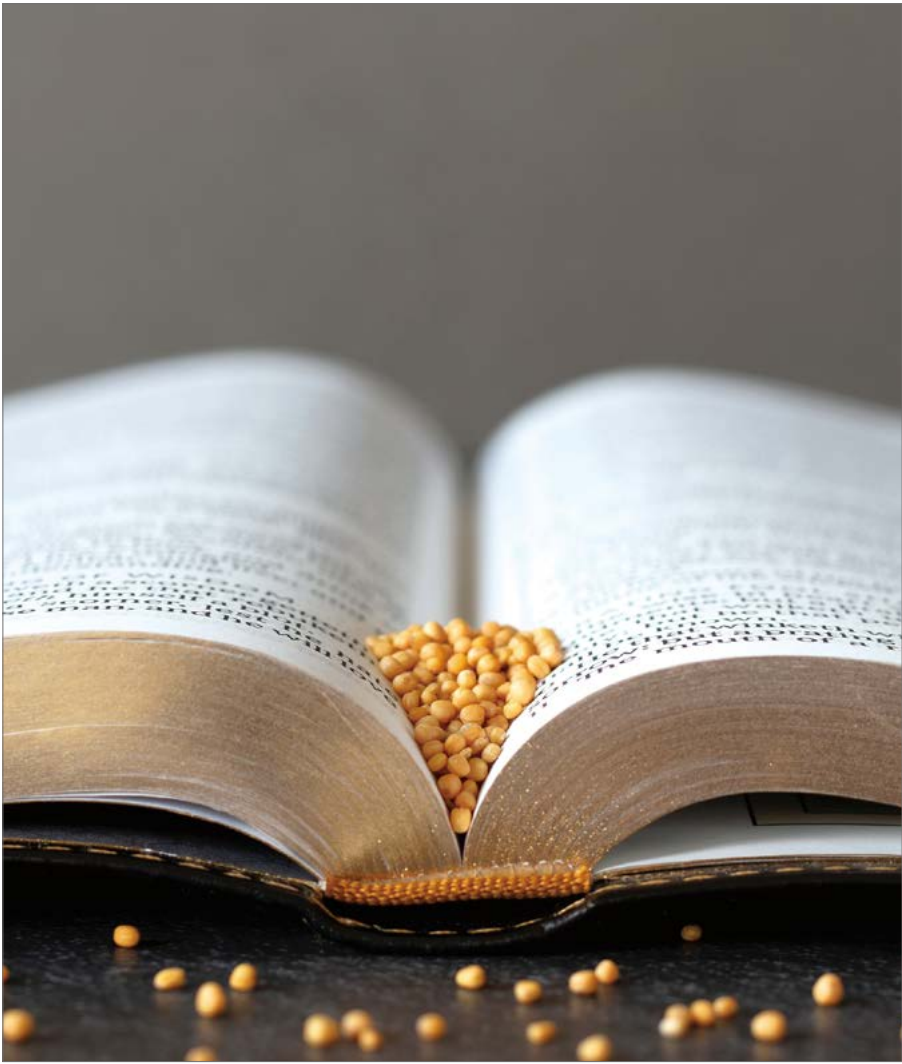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열망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견지 못하여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여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열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견지 못한 사람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다’는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이해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얹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사도행전 14:8~15

8.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견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	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5.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이라
---	--	---

자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육체의 장애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회복,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창조된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전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이 믿음 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바른 응답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이 노촌이었는지 아니면 다락방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견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는

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견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10절)라고 하자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있게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 못 들으면 그만큼 내 영혼의 상태가 힘들어집니다. 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다음 한 주 동안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매 주일 들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믿음은 전적인 수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견지 못한 사람은 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네 발로 일어서라”(10절)라는 소리에 자신이 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자기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부정은 스스로 이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것을 부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견지 못한 사람, 그저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용하며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합당한 믿음 안에서 창조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받아 순종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매일 기적을 경험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 - 3

거룩한 예배는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낳은 첫 후손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각각 제물을 준비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인에 대하여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창 4:3)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벨에 대하여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창 4: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제물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또한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자신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린 것에 불과했지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자신의 소산 중의 가장 처음의 것을 드리며, 자신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이 그냥 준비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나의 예배뿐 아니라 다른 성도의 예배가 방

해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이를 비롯한 아래의 수칙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행정기획실

<거룩한 예배를 위한 10가지 수칙>

- ① 교회에 올 때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착용합니다.
- ② 예배실에는 음료나 음식물의 반입을 삼갑니다.
- ③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합니다.
- ④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 예배실에 들어옵니다.
- ⑤ 예배실에 들어와서는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 ⑥ 주보에 표기된 찬송가와 본문을 미리 찾아 예배를 준비합니다.
- ⑦ 설교 말씀을 들으며 메모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 ⑧ 헌금은 전날 미리 준비하여 봉투에 기도제목과 이름을 쓰고 드립니다.
- ⑨ 축도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⑩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한가위 잔치’

9월 27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명절의 기쁨 나누



광림교회는 추석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초청해 따뜻한 한가위 정을 나눴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위원장 서명관 장로) 주관으로 열린 ‘한가위 잔치’는 9월 27일(주일)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180여 명은 예배와 믿음의 교제를 통해 명절의 기쁨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한가위 잔치에는 13명의 외국인이 초청되어 처음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했다. 서로를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며, 소중한 전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더욱 컸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고향을 떠나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이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외국인들은 정성껏 마련된 풍성한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각국 선교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한 연합찬양팀의 다국어 찬양과 알렉스 집사(에티오피아 선교회)의 사회로 장기자랑이 이어져 한가위의 흥겨움을 더했다.

첫 순서에서 남서울대학교 중국·일본·베트남·몽골 등 유학생 45명이 한국어로 ‘실로암’을

찬양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러시아 선교회가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할 때 참석자들도 두 손을 들고 함께 은혜를 나눴다. 중국어 선교회는 시편 말씀을 암송하며 감동을 선사했고, 불어권 선교회는 어린 자녀들과 밝고 힘찬 찬양으로 잔치의 즐거움을 더했다. 마지막 순서로 에티오피아 선교회는 서로 손을 맞잡고 아프리카 고유의 찬양과 율동을 통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선물했다.

서명관 장로는 “이번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한가위 잔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식사와 선물, 경품 등 많은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남·여·실업인선교회, 기드온·꽃꽂이선교회, 나눔의 집 등 여러 기관과 부서, 성도들로 인해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25년 동안 한결같이 외국인제자훈련센터를 섬기고 있는 윤종석, 조기숙 권사 부부는 “갓난 아기로 왔던 외국인 가정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또 한국에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했다.

소현수 기자

포토 뉴스



복음전도의 달

10월은 복음전도의 달이다. 성도들은 다니엘 기도회로 모여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 10월 25일은 복음전도주일로 지킨다.



새벽성김봉사

사회사업위원회 주관으로 새벽성김봉사가 10월 7일(수), 새벽 5시 40분~6시 50분까지 웨슬리관 입구에서 열렸다.



고3·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
고3·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10월 10일(토) ~ 11월 18일(수)까지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열리고 있다.

감독회장 동정



- 9/27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한가위 잔치
- 9/29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학교법인 문영학원 창학 100주년 기념예배
- 10/3 제7회 광림 한마음 워킹 챌린지
- 10/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창립 120주년 기념식
- 10/10 추계산상기도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멕시코 메리다 의료선교

육신의 치유와 영적 회복을 전하다

멕시코의 척박한 선교 현장 가운데 눈물과 기도가 서린 메리다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의료선교는 칸쿤에서 매일 버스로 2시간을 이동하는 헌신 속에, 바야돌리드 지역 시민회관을 빌려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이틀간 35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찾아왔으며, 진료와 처방을 포함해 500건 이상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번 일정에는 광림의료선교위원회 소속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대거 동행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오랜 세월 열악한 의료 여건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건강 관리에 취약했던 현지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심한 건강 검진과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아미용 선교와 아이들을 위한 선물 나눔 등 다채로운 사랑의 봉사가 함께 진행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메리다 바야돌리드 의료선교는 육신의 질병 치유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한 감동의 장이 되었다.



2026 중남미 선교사대회

칸쿤에서 펼쳐진 영적 재충전과 선교의 미래 논의

광림교회가 주관하고 후원한 ‘2026 중남미 선교사대회’가 멕시코 칸쿤과 메리다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착박한 선교 현장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중남미 선교사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전하고, 향후 감리교회 선교의 미래를 밝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번 선교사대회에는 중남미 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21가정(총 52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광림교회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 숙식과 항공료 전액을 지원해 감동을 더했다. 또한 광림의료선교회 소속 의료진과 트리니티 찬양단, 봉사자 등 총 52명이 동행해 현장의 선교사들과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이번 선교사대회에 참석한 선교사와 가족들은 육신의 치유와 함께 영적으로도 깊은 위로를 얻었으며, 새로운 선교의 활력을 얻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상희 기자



제7회 광림 한마음 워킹 챌린지

10월 3일(토) 경기도 포천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제7회 광림 한마음 워킹 챌린지가 열렸다. 광림실업인선교회(회장 안경섭 장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교인이 함께 세미나하우스를 출발해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가을 길을 걸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예배를 드린 후 A, B코스를 선택해 A코스는 왕복 4km로 국립수목원 입구까지, B코스는 왕복 5.4km로 광릉 입구까지 걸으며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워킹 챌린지는 새가족들이 함께해 복음전도의 달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한 성도들은 보물 찾기와 레크리에이션, 시상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장로회와 남선교회·여선교회·실업인선교회 후원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시작부터 폐회까지 질서를 지키고 행사장 주변을 정리하는 등 서로를 배려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광림 뉴스레터





목회현장

아침 말씀, 저녁 기도로 세워지는 2선교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2선교구는 성도들의 바쁜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기도의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온타임’ 매일 묵상 메시지는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심령을 은혜로 채우는 거룩한 양식이 됩니다. 아침 일찍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루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2선교구 성도들은 각자의 일터와 가정,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준과 지혜를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감하는 매일 저녁 시간대에는 요일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담은 ‘공동기도문’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데 모아줍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화요일에는 교회의 거룩함과 영적 부흥을 위해 ‘광림의 제단’을 품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는 영적 가족으로 묶인 ‘교구와 속회’의 부흥과 서로 간의 깊은 연합을 위해 합심

하여 기도하며, 목요일에는 미래의 주인공인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요일에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어 있는 ‘환우들’의 완전한 치유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가정과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하며, 주일 저녁에는 한 주간을 살아갈 성도들의 ‘일상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마무리 기도를 올립니다. 이처럼 아침에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녁에는 공동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2선교구는 날마다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영적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마리아·스테반선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따뜻한 교제와 모임의 열기는 2선교구 전체에 새로운 영적 활력과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의 고단함, 삶의 여러 무게 속에서도 젊은 세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서가는 모습은 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젊은 성도들의 순수한 열정과 자발적인 모습은 앞으로 2선교구가 이루어갈 영적 부흥과 사역의 귀하고 든든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행사나 거창함보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어지는 신실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의 축적이 선교구를 움직이는 가장 참되고 강력한 영적 동력입니다. 앞으로도 2선교구는 말씀과 기도의 줄을 더욱 단단히 매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 그리고 형통함의 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마음 모아 축복하며 계속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동혁 목사(2선교구)



서로를 세우며 함께하는 8교구 남성 속회



저희 8교구 남성 속회는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속회입니다. 5년 전, 같은 교구의 청장년부 지체 몇 명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년부에서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기에 반가웠고, 하나님께서 같은 지역에서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의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배정된 속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속원 명단을 통해 새로운 속원을 알게 될 때마다 먼저 연락하고 안부 묻기를 지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사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꾸준히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두 명의 집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직장 and 사업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

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저녁 7시 30분이면 각자의 가정을 개방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한 가정씩 돌아가며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속회를 드리며 예배 후에 정성껏 식사도 대접합니다. 특히 40대의 젊은 가정들로 이루어진 속회다 보니 직장 and 사업장, 부부관계, 자녀들의 교육 and 학교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이제는 친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어 서로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속회 시간을 사모하여 5년간 매달 1회 이상 빠지지 않고 속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속회를 드리면서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영혼의 닻인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자”는 권면과 격려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청장년부와 남선교회, 성가대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소식을 나눌 때, 속회 마지막 순서에 광림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 열린 3선교구 하나데이 행사에서도 속원들은 앞장서서 행사 전반을 준비하고, 바비큐 고기를 굽는 등 젊은 세대로서 맡은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서로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서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모습 속에서 즐겁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고 감사한 변화는 각 가정에서 속회를 드리다 보니 아내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속회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원래 따로 속회를 드리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하는 연합 속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이면 웃음도 더 많아지고 나눔도 더욱 풍성해져, 연합 속회를 조금 더 자주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즐거운 계획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저희 남성 속회의 기도제목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고 있는 대부분이 속장이기에 1명 이상의 속원들에게 꾸준히 연락하여 속회에 그들도 함께 동참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셨듯 앞으로도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쁨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편기형 집사(8교구)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제28회 통일성취기도회

일시
2026년 10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개 부대
※ 당일 본당(본엘성전) 및 지성전에서 오전 11시 기도합니다

부대	선교구
육군 25사단	남 / 북 / 동탄
육군 7사단	6, 9 선교구
육군 15사단	5, 10 선교구
공군 39비행단	2, 8 선교구
해군 2함대	4, 7 선교구
해병대 2사단	1, 3 선교구

주관 | 남선교회 총연합회

